

市道·지역회 소식

참전경찰 유공자회

지난 3월 30일 문화동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에서 이사회겸 단합대회를 갖고 당면현안을 협의하는 한편 회의 발전을 결의했다.

인천 경수산악회

최근 이윤기 회장 등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진부면 소재 오대산에서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회원들은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을 거쳐 비로봉 정상에 올라 노익장을 과시했다.

서울서부 경우회



지난 3월 16일 오전 11시 서부경찰서 대강당에서 전현직 경우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이만중 회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지역회 발전을 결의했다.

전남함평 경우회



지난 3월 17일 함평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임원들을 선출하는 한편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부산진구 참전경찰 유공자회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전현직 경우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 총회를 갖고 회의 발전을 결의했다. 이날 황인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자』고 당부했고, 민영하 부산참전경찰유공자회 회장도 『우리 가슴에 달려 있는 훈기장은 구국과 호국의 신명을 바친 댓가로 받은 귀중한 가보이니 만큼 깨끗하게 달고 다니자』고 역설했다.

전남진도 경우회



최근 부영식 회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법 및 치안협력 행사의 일환으로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를 방문해 윤관 명예총장(전 대법원장), 부구육 총장(전 서울지법 부장판사)과 환담하는 것을 비롯, 법이론

수강으로 준법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양산경찰서에 들러 지역 치안에 관한 현황을 설명받고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의식을 고취했다. 이날 진도 경우회는 준비한 전세버스 정면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했다.

대전서부 경우회



최근 대전서부서 회의실에서 오문영 회장과 김성일 서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우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조만희 감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지역회 발전을 결의했다.

서울중앙 경우회

최근 불암산에서 김택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한해의 무사안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가졌다. 한편 중앙경우회는 지난 25일에는 자문위원회 월례회의를, 지난 20일에는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13일에는 태백산에서 산악회를, 5일에는 이사 단합회를, 3일에는 전의경 위문행사를 가졌다.

성남중부 경우회



최근 지역회 사무실에서 유병태 회장, 권영섭 서장, 최상길 자문위원장 등 전현직 경우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유병태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고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전남영광 경우회



최근 조영채 회장, 김재병 서장, 표관학 자문위원장 등 전현직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단을 전원 유임시키는 한편 경우회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들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관내 주요 도로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 참전경찰유공자회



최근 강대인 회장을 비롯한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데 서울 용산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강대인 회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조직발전을 다짐했다.

경북구미 경우회



지난 3월 25일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김재수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재선출하는 한편 독도 시수 결의대회를 갖고 독도의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서울중앙 경우회



최근 중앙경찰서 4층 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이승범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중앙경우회장을 재선출하고 지역회 발전을 결의했다.

서울마포 경우회



최근 마포경찰서 회의실에서 김재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지역회장으로 선출하고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경기고양 경우회



지난 3월 29일 관내 음식점에서 정양수 회장, 박종위 서장 등 전현직 경우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현 정양수 회장을 신임 지역회장으로 재추대하고 경우회 활성화를 결의했다.

서울방배 경우회

최근 전현직 경우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신동욱 회장을 신임 지역회장으로 재선출하고 회원단합을 결의했다.

전남광양 경우회



최근 광양경찰서 대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김운철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특히 황호선 서장은 선배 경우들이 총회를 갖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층 대강당을 행사장으로 준비해 주는 한편 푸짐한 음식으로 오찬까지 마련해 주어 참석 경우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選으로 마무리 되는 순간 모두가 하나되는 경찰인의 자력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는老경우들의 주름진 모습은 그 어느때 보다 아름답게 비쳐지고 있었다.

처음 과열분위기와는 달리 이렇게 선 거결과에 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분위가 조성된 것은 중앙회에서 내려보낸 선거관리규정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 이사회에서 6개월전 전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대의원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1개월 회비 미납자도 대의원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 결과라고 평가 되었다.

한편 회장으로 선출된 장태규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종로경우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500만원의 찬조금을 내고 매월 30~40만원의 警友會 운영 지원금을 내겠다고 역설하여 대의원들로부터 또 한번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렇게 처음 우려했던 競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됨에 따라 앞으로 종로경우회는 장태규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튼튼하고 알찬 경우회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취재 권호영 홍보부장
ho40@yahoo.co.kr

警友會 지역회장 대폭 바뀌었다

270명중 105명이 初選, 39% 차지

경우회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 270개 지역회장 선거에서 초선 당선자가 105명, 중간층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경감, 경위, 경사 출신도 각각 54명, 63명, 64명이 당선되어 중간층 출신들이 가장 많이 당선되는 분포를 보임으로서 퇴직 경찰관들의 경우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경우회 정관상 제한된 재선으로 당선된 지역회장은 91명에 달했고, 특히 지역에서 덕망이 높거나 출마 후보가 없어 3선 당선자는 39명, 4선 당선자 17명, 5선 당선자 7명, 6선 당선자 3명, 7선 당선자 1명, 8선 당선자 1명, 그리고 9선에 당선된 지역회장도 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신 계급별로 보면 경사, 경위, 경감출신들을 제외한 경무관 이상 출신은 3명, 총경출신 17명, 정경출신 21명, 정경출신 15명, 순경출신 29명 등이었다.

경우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初選 회장들이 많이 당선됨으로 해서 지역회장들이 대폭 바뀌었고, 연령대도 상당히 젊어졌으며, 중간 및 중상위 계급출신 경우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서 간부출신 경우들이 경우회로 많이 진출하는 등 경우회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경우회는 그간 거의 지원되지 않았던 지역회 단위에 대한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경선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역회장에 당선되면 시도 단위 회장 및 중앙회장 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지난해 10월 구홍일 회

장 당선 이후 중앙회의 전국 각급회에 대한 관심도도 한 몫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4월 1일부터는 전국 19개 시도 및 지역회장 선거가 일제히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참고 : 시도회 및 특별회 총회 일정표)

〈시도회 · 특별회 정기총회 일정〉

소속회	일 시	장 소
서울	4.21(목) 11:00	서울경찰청 7층 회의실
부산	4.26(화) 11:00	부산경찰청 강당
대구	4.26(화) 10:30	대구경찰청 회의실
인천	4.27(수) 10:30	인천경찰청 회의실
광주	4.29(금) 11:00	전남경찰청 무도관
대전·충남	4.20(수) 11:00	충남경찰청 회의실
울산	4.13(수) 11:00	울산경찰청 회의실
경기	4.29(금) 11:00	경기경찰청 2층 회의실
강원	4.29(금) 11:00	강원경찰청 소회의실
충북	4.27(수) 11:00	충북경찰청 회의실
전북	4.28(목) 11:00	전북경찰청 회의실
전남	4.28(목) 11:00	산록회관 4층
경북	4.21(목) 10:00	경북경찰청 회의실
경남	4. 8(목) 11:00	로얄호텔
제주	4.28(목) 11:00	제주경찰청 회의실
해경	4.27(수) 11:00	송의가든
참전	4.27(수) 11:00	경찰청 강당
기능	4.19(화) 12:00	명문예식장(식당)
여경	4.22(금) 11:00	도교 소강당

〈지역회장 선출현황〉

선출회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회장수	105	91	39	17	7
선출회수	6선	7선	8선	9선	계
회장수	3	1	1	2	266

戰 · 義警 소식

정읍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 발대식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박관배)는 17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경찰관, 전의경 어머니회원 30명, 전의경 20명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의경 어머니회 결성식 및 전의경과 어머니들간 결연식을 갖고 회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의경 어머니회는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여 전의경들이 복무에 전념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어머니회원을 상담요원으로 활용해 애로사항

과 고충을 상담하여 복무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어머니회원들은 행사후 전의경 내부반을 직접 돌아보았으며 앞으로 매월 경찰서를 방문 전의경들의 생일잔치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복지 시설 등에 대해 전의경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서장 관사에서 전 · 의경과 대화

경남 진주경찰서 우문수 서장이 전 · 의경을 관사에 초대, 대화의 장을 열었다. 우 서장은 최근 관사 정원에 전의경 40명을 초대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복무 중 어려움을 들은 뒤 가능한 것은 바로 개선토록 지시했다.

우 서장은 앞으로도 이들의 자기진작을 위해 매달 관사 정원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우 서장은 "전의경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격의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사 정원에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赤色燈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관 검거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로 일산경찰서 소속 K(35세)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5일 새벽 0시 4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나이키 대리점 사거리에서 트라제XG 승합차를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신호

를 받고 직진해오던 무조 승용차(운전자 박 모.39세)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K순경은 800여m를 달아났다가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견인차량 운전자가 이 모(23세)씨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K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차량에 있던 운전자 박씨 등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폭행사건 관련자 전과 유출 물의

경찰이 폭행사건 당사자 가족에게 사건 상대방의 전과기록을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밤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된 A(43세)씨의 가족에게 문서에 사건 당사자인 B(62세)씨의 전과사실이 삭제되지 않았다.

A씨는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

됐으며 경찰은 그의 가족에게 체포이유 등이 담긴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문서에 B씨의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B씨의 전과 사실이 마를 전제로 퍼져 나갔다.

B씨 가족들은 "경찰의 부주의로 전과 기록이 유출돼 좁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 사고정보 제공 돈 받은 경찰관 수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수, 주임검사 김 현)는 최근 부산 A경찰서 경찰관 수명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경찰관에게 2002년부터 수시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정비업체 대표 장 모(46세)씨를 구속하는 한편 관련 장부를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競選의 현장을 찾아서...

「과열과 우려」에서 「아름다운 화합」의 競選으로

-서울의 1번지 종로경우회-



장태규 후보의 연설 장면

現 회장과 理事 두명이 등록하여 競選의 열기가 뜨겁다는 서울의 일번지 종로 경우회를 찾았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회원 79명 중 2명이 이민을 가고 77명인 종로경우회가 최근 경선을 앞두고 양진영에서 끌어들이는 회원의 수가 자그만치 191명.....

競選이 과열되어 잡음이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고 후시 지역경우회가 경선으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로 갈라서는 결과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競選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11시 40분부터 시작된 총회는 종로경찰서장(총경 辛肅善)의 인사 말속에 이에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 시킨 후 곧바로 임원선출에 들어가 먼저 기호 1번인 現회장 박상숙(65세) 후보는 8분간에 걸친 소견발표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에 따라 『회원의 친목도모와 조직활성화, 전 · 현직유대강화, 회원복지기반 조성, 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 등을 역설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두 번째 등단한 기호 2번 장태규(66세) 후보는 즉석 스피치를 통해 『장태규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왜 경우회장이 되려고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경우회는 계급을 떠나 누가 열심히 봉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간부로 출발하여 종로에서 30년을 살았다는 점, 종로경우회를 하나로 뭉쳐 봉사하는 경우회로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경우산악회를 조직하여 건강을 다지게 하고, 전 · 현직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우회를 활성화 시키고, 경선을 하기 위하여 각 진영에서 끌어들이는 철세 경우는 떠나가게 하고, 순수한 종로맨만이 종로에 남아 활기찬 경우회를 만들겠다고 22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

12시 50분부터 투표에 들어가 오후 1시 10분에 끝난 투표결과에는 참석 회원 77명 중 대의원 6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現회장인 기호 1번 박상숙 후보가 31표, 기호 2번 장태규 후보가 35표, 무표 2표로 장태규 후보가 4표 차이로 제 18대 종로경우회장에 선출 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선포 후 두 후보는 손을 맞잡고 등단하여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양손을 들어 대의원에게 답례의 큰 절을 함으로서 「과열과 우려」의 競選에서 「아름다운 화합」의 競